2024년 제1차 안동권씨 대종회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2024년 제1차 안동권씨 대종회 상임위원회를 4월 12일(금)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영창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하·권철환 수석부회장,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돈 추밀공파회장, 권태호 지역종친협의회 회장, 권광택 청주청장념회장, 권순구 원주종친회장,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병돈 정간공종중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거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상임위원이 참석이 부진하다. 일일이 전화드렸는데 위임장 많이 보내주셔서 성원이 되었다. 회장 취임시 뭔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기대에 어긋나 죄송하다. 상임위원회 자주 하고 싶으나 지역 모임, 종친회 모임 등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정기총회와 회장단 회의 등 일정이 많이 짜여져 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긴급 사항에 대해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린다. 사무총장이 사표 의사를 표명했으나 최종 결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총무국장도 공모 중이다. 대종회를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약속드린 바를 하나 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예회장 문제, 수석부회장 증원 문제, 능동장학회 문제, 전 회장 공로금 문제, 사무총장직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권철환 수석부회장은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5월 4일 안동에서 개최된다. 이번에는 안동권씨의 본향인 안동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조 묘소에서 채화해서 성화봉송도 하고 성대하게 할 계획이다. 또 능동재사 주차장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축했다. 참제원들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후련하다. 시조 영정을 제작하면 어디에 봉안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에는 팔각정을 설치했고, 영당으로 할 만한 곳으로 능동재사 주변을 물색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상임위원회는 13시 35분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5월 7일 삼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폐회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영주종친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4년도 안동권씨영주종친회(회장 권중수) 정기총회가 2024년 4월 1일 영주시내 그랜드컨벤션 웨딩홀에서 안동권씨 대종회 권영창 회장과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 외 장욱현 전 영주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영주종친회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2024년 권중수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회로 권오철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태사공 시조님께 망배를 올린 뒤 참석하신 내빈 소개. 전임회장과 총무에 대한 공로패 수여. 회장 인사. 내빈축사. 종친회 결산보고, 현안사항 토의, 오찬, 경품추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종친회 행사에는 권기호. 권오엽. 권무탁. 권종범. 권영표. 권춘탁. 권태림. 권오종 고문 등 영주종친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원로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권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사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총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신 종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4월 5일 시조 묘소 춘향제에 많이 참여하자고 독려하며 특히 내년 봄에 영주에서 개최하는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전국에서 많은 종친들이 우리 고장에 찾아오므로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영주종친회 회장. 총무로 재임하시면서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권영창 회장과 권오기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때는 참석 종원들로부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 선출된 권중수 회장과 임원들은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종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대종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당부하였으며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은 안동권씨 일천일백년사 발간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자료발굴사업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총회에서는 2023년도 종친회 결산보고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2부 행사에서는 오찬을 하면서 족친들의 흥겨운 노래 속에 70여 점의 푸짐한 경품 추첨을 하고 내년도 총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안동권씨제례위원회 양소 헌관들 단일화 하기로

안동권씨 대종회 제례위원회(위원장 권정창)는 3월 28일 오전 11시 안동시 평화9길46~13(평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정식 청운'에서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제례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례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례위원회는 매년 시조 태사공 묘소와 아시조 낭중공 단소의 춘, 추 향사 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찬자, 축관 등 5명의 헌관과 이들을 보좌하는 재유사 및 별유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매년 시조 및 아시조 양소(兩所)의 헌관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 헌관과 재유사, 별유사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양소를 단일화로 확정하였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꽌, 찬자, 축관 등 5명의 헌관과 재유사, 별유사가 선정되면 시조 묘소 및 아시조 단소 등 양소를 다 같이 봉행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조 묘소 및 낭중공 단소의 헌관과 재유사, 별유사는 별도로 선정했는데 오는 4월 5일 춘향제부터 양소를 단일화 한다.

이날 회의에서 초헌관인 도유사(都有司)가 제수성금(祭需誠金)을 내놓는데 반해 제례위원회는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올부터 처음으로 도유사한테 회전(回錢) 또는 회재(回財)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정창 제례위원장은 "춘, 추 향사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상 숭배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철환 회장은 "안동권씨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례위원들이고 특히 향사 때 창홀(唱笏) 내용을 모두 어려운 한자로 읽고 있는데 앞으로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철환 회장은 제례위원들에게 백진주쌀 1.5kg짜리 2부대씩을 전달하고 점심값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추밀공파 매헌공 춘향제 봉행

매헌공(梅軒公 권우權遇, 1363~1419)과 그의 맏아들 판윤공(判尹公, 권조權措)의 춘향제가 4월 18일 10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61-1에서 권오돈 추밀공파회장과 권용주, 권순호 매헌공 종중 고문과 권병관 회장을 비롯하여 권병돈 전 정간공종중 회장과 권병돈 정간공종중 회장, 권경일 추밀공파종회 사무처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권용호 총무 등 60여 명의 후손들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번 춘향제는 올봄 매헌공종중에서 매헌공 묘소와 아들 판윤공의 묘소에 둘레석을 설치하고 묘원을 정비한 이후 봉행하는 첫 향사이다. 묘소로 올라가는 길목에 묘비처럼 불망비(不忘碑)가 세워져 있는데 "학생무안박공용갑學生務安朴公用甲 유인경주최씨지위孺人慶州崔氏之位"라고 새겨져 있다. 사정은 이렇다. 매헌공 후손들이 황해도 평산, 전북 정읍, 충북 괴산 등지로 낙향하고 여러 전란을 겪으며 매헌공 묘소를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1876년 후손 권택유가 지석을 찾아 단장을 했는데, 이곳에 살던 박용갑과 그의 처 경주최씨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으려 후손들이 불망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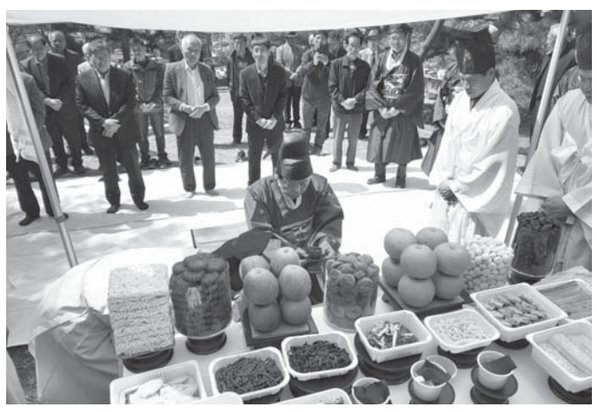
이날 매헌공 춘향에는 초헌관 권태평, 아헌관 권병돈(정간공종중 회장), 종헌관 권문근, 집례 권용주, 대축 권태관 등으로 분방하였다. 판윤공 춘향에는 초헌관 권태영, 아헌관 권용배, 종헌관 권순문, 집례 권영렬, 대축 권혁승 등으로 분방하였다.

춘향제를 마치자 주최측은 봉현재(蜂峴齋)에서 권용호 총무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과 열선조에 대한 망배, 회장인사,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개선,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정치총회를 개최했다. 권병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 좋은 봄날 매헌공 향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헌공 종중은 50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 그동안 후손들은 각자 사회의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은 우리 추밀공파는 사람은 제일 많은데 회관이 없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집한 칸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추밀공파 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5억 6천만원을 모급했다. 목표는 10억이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원개선에서는 권용호 총무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위쪽이 매헌공 묘소, 아래쪽이 판윤공 묘소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46)

그리고 그는 제도적 장치로써 백성은 누구나 탐관오리나 지방관(사또)을 고소할 수 있게 하고 군졸(軍卒)도 장관(將官)의 비리를 보고할 수 있는 '부민고소지법(部民告訴之法)' 같은 것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배 상층부(양반과 관리)와 임금의 권한인 군권(君權)을 강화하고 나라의 근본이자 유교의 민본정치 사상 핵심인 백성(민중 ; 四民 ; 士農工商)들의 민권(民權)을 제한하고자 한 세조(수양대군)시대 이후의 왕조의 질서에 대한 비판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다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왜곡된 현실정치를 비판하였으므로, 정인홍이 왕의 징소(徵召)에 의해 상경(上京)하자 서울의 일반 민중들은 거리에 나와 그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宣祖實錄』, 35년 4월 癸卯條, 「光海君日記」. 7년 11월 甲申條)

조선조 후기의 산림정치(山林政治)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인조반정(궁정쿠데타·왕위찬탈사건) 이후에는 광해군 정치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았던 정인홍의 산림정치를 형식적으로만 본받은 서인세력은 오직 명분만을 확보하고 왕비를 자파에서 배출하여 정권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데서 경제적 이익도 더불어 취하려 하였다.

그래서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 1852~1898)은 "세상에 전하기를 '인조반정한 직후에 훈구척신들이 모여서 밀약密約하기를 국혼國婚(왕실과의 혼인 ; 왕비와 세자빈世子嬪 간택)을 잃지 말고 산림山林을 높이 올려 쓰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기네들의 정치적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거두려 함이다."이었고 '서인 스스로의 정치세력'이 공신과 외척이 되고자 하였으니, 문자 그대로 '세도정치와 훈척화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익훈의 무고(誣告)역옥사 사건인 갑술옥사(1694년) 이후 서인 노론의 일당전제화(一黨專制化) 19세기 이후 외척(안동김씨·풍양조씨·여흥민씨)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으로 특히 고종과 여흥 민씨 척족정치의 난맥상은 망국으로 치달았다.

인조 쿠데타 후에 정인홍의 산림정승(山林政丞)으로서의 그 역할만을 모방하여 김장생(金長生, 호는 사계沙溪, 1548-1631)이 산림으로 추앙되었지만, 민중을 위한 사회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권과 명망만을 위해 서인 훈척파와 '산당山黨(산림당山林黨)'이다 '한당漢黨(서울 한성조정당漢城朝廷黨)'이다 하여 권력다툼에만 연연하였다.

실지로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송익필(宋翼弼, 1534~1599) · 이이(李珥, 1536~1584)· 성혼(成渾, 1535~1598)에게서 배우고 후대 서인-노론파의 절대적 추앙을 받아 그들 스스로의 당파를 정당화하고자 그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의 학계에서도 또한 '김장생을 산림의 효시嚆矢'라고 김용걸은 주장하나 이는 앞 시대인 광해군 때 산림정승인 내암 정인홍을 모르거나 일부러 후대 서인들의 왜곡하고 무시한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인조쿠데타로 순수한 산림정치는 오염되었으며 벼슬을 선조에서 광해군, 인조 대까지 삼대에 걸쳐 몇 번의 사양 외에는 계속 녹(祿)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산림山林'이라 운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김용걸은 스스로 '국가에서 징소를 받아도 나아가지 않는 특정인사에 산림이란 존칭을 붙이게 된다'고 하면서 김장생을 산림이라 하고 더구나 그 효시라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장생의 출신을 보아도 사림파 출신으로 보기가 힘들다. 구체적인 예로서 김장생의 8대조 김약채(金若采)는 고려말·조선초 양 왕조에서 절의를 굽히고 높은 벼슬을 하여 녹을 먹었고, 5대조 김국광(金國光)은 세조·예종·성종 삼대에 걸쳐 벼슬하고 적개좌리공신(敵愾佐理功臣)에 좌의정에 이르고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해지는 훈구파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김장생 아버지 김계휘(金繼輝, 1526~1582)는 당시 비록 청명(淸名)이 있었으나 서인의 맹장으로 동인들이 서인 삼윤(三尹: 윤근수尹斗壽, 윤현수·尹根壽, 윤현尹睍)의 탐오비리(貪汚非理)를 들추어 탄핵하자 삼윤을 옹호하기에 바빠 좌천되었고 후에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당쟁과 인조반정에서의 서인을 같은 사람파나 산림으로 보는 태도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들 인조 이후의 이른바 '산림'이라 칭하는 자들은 제자와 스승이 서로서로 추천하고 왕이 벼슬에 임명하면 사양을 거듭하다가 벼슬의 품계가 높아지면 그때야 슬그머니 나와 이록(利祿)과 명예나 챙겼다. 서인-노론 정권이 계속되면서 산림이란 이제 훈척의 앞잡이로 민중을 외면하고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여 공론(公論)이라고 하면서 사회와 정치를 보수반동화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인홍이 실천하였고 광해군의 개혁정치에서 이룩하였던 산림정치의 민본성과 공론형성은 외면하고, 과거(문과 대과)를 치루지 않고 높은 벼슬하는 것과 조야(朝野)의 추앙을 받는 외형적으로 모습만 본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정인홍을 역사에서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여론을 조작하면서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가지려는 것이었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산림정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진실로 올바른 산림정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진정한 산림정치의 태두(泰斗)는 정인홍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서인-노론으로 이어져 왜곡된 산림정치의 기원은 인조반정과 함께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황현과 이우성의 '산림'에 대한 논의는 좀 더 구분하여 진실에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 서인세력은 이권과 명분을 함께 가지면서 여론을 오도하였을 뿐, 반(反)민중화된 훈척파의 정치비리에 대결하여 현실정치를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훈척화 되어갔다는 사실이 조선 후기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성리학의 발전과 퇴보 그리고 실학의 발생 이유와 연관하여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